

북한 관련 TV뉴스의 프레이밍 방식에 따른 수용자의 인식 변화에 대한 실험연구

김성준

(국민대 대학원 석사)

이장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본 연구에서는 정권의 대북한 정책에 따라 변화된 뉴스 프레이밍이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실증적 연구 방법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뉴스 프레이밍의 노출에 따른 수용자의 반응을 실험 연구를 통해 직접 확인함으로써 뉴스 프레이밍의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연구문제 1>은 북한의 이미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인데, 이 검증 결과 뉴스 실험 처치를 하지 않았던 통제 집단과 실험 처치가 되었던 두 집단 간에는 북한의 이미지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 할 수 있었다. <연구문제 2>는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의 프레이밍이 통일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 결과 적대적 뉴스 처치집단의 경우는 인식을 부정적으로 강화시켰으며, 우호적 뉴스 처치집단의 경우도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역시 부정적인 인식을 강화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TV 뉴스 수용자의 인식에 미치는 뉴스 프레이밍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추후 우리나라 방송의 바람직한 북한 및 통일 관련 뉴스 보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뉴스 프레이밍, 수용자 인식의 변화, 미디어 효과, 남북관계

1. 서론

최근 들어 뉴스 프레임(news frame)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의 뉴스 프레임 연구는 프레임을 뉴스 기사를 어떠한 특정 관점에 따라 구성하는 하나의 틀로 인식하면서, 뉴스 프레임이 사건을 뉴스로 변화시키는 과정에서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관점으로 현실을 구성하는가를 분석하고 확인하는 것에 연구의 중점을 두었다. 즉, 프레임은 뉴스 기사에서 주요 주제를 어떠한 특정 관점에 따라 구성하는 하나의 틀로 바라본 것이다. 이러한 경향의 연구는 뉴스 프레임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확인하는 연구를 해왔다(Goffman, 1974; Iyenger, 1991). 이렇듯 뉴스 프레임 자체가 중점적인 연구의 대상으로 전개되던 양상이, 최근 들어서는 프레임의 특성에 따라 수용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효과 연구로 전환되고 있다(Gamson, 1992; Entman, 1993; Price & Tewksbury, 1997).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프레임 효과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실증적 연구 결과를 얻어낸 바 있다. 이준웅(1997)은 1994년 상반기 미국의 의료제도개혁 논쟁을 예로 들어 언론이 틀 짓기 기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밝혔다. 또한 이종은(1999)은 장애인 문제에 대하여 미디어가 어떠한 방식으로 프레임 기능을 표출하였으며, 나아가 이러한 프레임이 수용자의 감정 이입 및 편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서미혜(1998) 또한 그의 논문에서, 미디어가 정치 뉴스를 다루는 특정 방식이 사람들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미디어 프레임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디어가 정치를 전략 프레임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으며, 전략적인 선거 뉴스 프레임에 장기간 노출된 수용자는 정치적 냉소주의의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뉴스 프레임의 효과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아 북한 및 통일에 대한 TV 뉴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뉴스의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으며 이것이 시청자들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이후, 남한방송에 나타난 북한 및 통일 관련 뉴스 아이템의 변화는 과거 적대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던 보도에서 우호적인 측면이 강조되는 보도로 그 성격이 급격히 바뀌었다(이창현, 1999; 이우승, 2000; 주창운, 2000; 장호순, 2000). 역사적으로 남한방송은 냉전 및 반공 이데올로기를 동원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 해왔던 것에 비하여,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북한 및 통일 관련 뉴스 아이템의 변화는 전체적인 방송내용의 변화와 함께, 아주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즉, 과거 적대적인 보도가 국민들의 냉전적 인식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원천이었다고 한다면, 현재의 우호적인 보도는 국민들 북한 및 통일 인식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추정이다. 이러한 개별적인 뉴스 아이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변화를 유발하였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추정에 기반 하여,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의 보도 태도가 과거 적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우호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변화되면서 이를 실제적으로 시청하는 시청자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남한방송에서의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 프레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북한 및 통일 관련 사항에 대한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실증적 실험 연구를 통하여 파악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삼았다. 따라서, 수용자의 반응을 실험 통제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그 작용방식을 본격적으로 검토한다는 데에 이 연구의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한국 텔레비전 방송 뉴스의 북한 관련 보도태도가 어떠한지를 공영방송인 KBS 텔레비전 9시 뉴스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이를 토대로 수용자 반응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¹⁾ 실험 대상 집단은 대학생 층으로

1) 실험 처치물을 KBS 9시 뉴스로만 편집한 것은 KBS 이외의 다른 방송사 뉴스를 포함할 경우, 상이한 논조 및 화면 구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바, 이에 따른 변량통제의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었다.

선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대학생들이 북한 관련 뉴스를 어떻게 수용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의 올바른 TV 뉴스 기능을 가늠해 볼 수 있고, 방송이 민족적 동질감을 회복할 수 있는 기구로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의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문제

1) 뉴스프레이밍

프레이밍(framing)이란, 어떤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그것을 조직하고 분류하며 해석하는 작업을 말한다. 뉴스가 실제로 경험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을 이해하여 전달하는 방식 역시 프레이밍의 과정을 거친다. 즉, 사건들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주관적 관여를 지배하는 조직화의 원칙으로서 '틀'은 일상 세계의 단편들을 조직한다(Goffman, 1974). 이렇게 개인이 가진 일상적 해석의 틀처럼 뉴스 프레임 역시 뉴스 생산자들이 사건을 이해하는 방식임과 동시에 그 사건을 하나의 의미체로 수용자들에게 전달하는 문법인 것이다.

한편, 뉴스 연구에 적용되고 있는 프레임은 메시지 프레임(미디어 프레임)과 수용자 프레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Entman, 1993; Iyenger, 1991; Scheufele, 2000). 메시지 프레임은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적인 생각 또는 이야기 줄거리로 '기사 자체의 속성(attributes of the news itself)'이다. 반면에 수용자 혹은 개인적 프레임은 정보원, 기자, 개인으로서의 수용자가 자신의 머리 속에 축적하고 있는 정보 처리 지침의 집합, 즉, 스키마를 말한다.

뉴스 생산자들은 어떤 사건을 빠르고 일상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조건화 된 프레임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해석의 스키마(schema of interpretation)가 프레임이며, 이는 하나의 사건과 정보를 위치시키고, 인지하고 정의하며

이름 붙이게 한다. 이러한 정의는 프레임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인 선택과 강조, 배제 행위와 연결시키기도 한다(Gitlin, 1980). 즉, 뉴스 생산자가 가진 뉴스 프레임이란 뉴스 가치가 있는 사건을 지속적으로 선택하고 그러한 사건을 강조하며, 또한 어떤 부분을 배제시키는 일련의 조건화된 행위와 관련된다.

프레임에 대한 기존 연구는 인접 학문인 사회학과 심리학적인 계보를 가지고 있다(양승목, 1997 ; 이준웅, 2000). 먼저, 사회학 분야에서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많은 연구들이 뉴스 프레임을 가치나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스토리 라인이나 상징들, 그리고 항상 쓰는 문구들(stereotypes)”로 이해하고 텍스트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Iyenger, 1991). 쇠피러(Scheufele)의 분류에 의하면 미디어 프레임을 독립변인으로 혹은 종속변인으로 삼았던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한다. 즉, 뉴스가 하나의 프레임으로써 수용자의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독립변인), 뉴스를 분석하는 연구가 사회학적 전통에 포함된다. 또한 의제 설정에 관한 연구처럼 미디어 담론을 차지하기 위한 이해집단간의 이슈화 운동,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미디어 프레임(종속변인)을 분석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Scheefe, 1999; 이준웅, 2001에서 재인용).

심리학 분야에서의 연구 결과들은 프레임링을 이슈의 특정 요소가 개인의 인지적 차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도록 어떤 맥락에 정보를 위치 짓는 것으로 이해한다. 여기서 선택된 요소들은 개인들이 판단하고 추론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 심리학 분야의 프레임링 연구는 미디어 프레임의 변화에 따라 수용자의 인지적 판단과 가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살피는 즉, 프레임이 효과를 유발하는 과정에 관한 연구라는 점에서 사회학 분야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준웅, 2000).

뉴스 프레임 개념은 특정 정보의 요소에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를 특정한 맥락에 위치시키는 행위로 바라볼 수 있다. 즉, 선택된 정보의 어떤 요소들이 개인의 판단이나 추론에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식을 ‘프레임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프레임이 없다면 현실은

감각적 사실들의 단순한 집합에 불과하지만, 프레임이 작용하여 현실은 일정한 질서를 부여받고, 의미를 구성하게 된다. 그러나, 프레임은 한시적인 지속성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프레임이 처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이에 대하여 갠슨(Gamson)은 이슈는 진화하며, 사회적 사건이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해석도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함으로써, 프레임의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였다(Gamson & Modigliani, 1989).

2) 뉴스 프레임 효과에 관한 제반 논의 검토

프레임의 작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면서, 프레임 작용의 결과, 즉 프레임 효과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효과 측면에서 뉴스 프레임은 수용자의 현실인식과 정치권력 행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먼저, 뉴스 프레임은 시민들이 공적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이용가능한 정치적 대안들을 좁히며, 특정 측면을 더욱 두드러져 보이게 하거나, 덜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 묘사된 현실의 요소들을 확대 혹은 축소하는 등 규모를 조정한다(Entman, 1993). 즉, 뉴스 프레임은 정보를 입력하고 해석하고 검색하는데 사용되는 인지적 장치(cognitive device)로서 이슈를 정의하고 다양한 정신적 표상들을 불러일으키며 현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한다. 그러나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현실인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단언할 수는 없으며, 그 과정에는 수많은 매개변수들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인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뉴스 프레임은 수용자 프레임에 상당한 영향력을 제공한다.

미디어의 프레임 과정은 판단과정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경로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로를 통해 개인의 의견을 변화시킨다(이준웅, 1997). 뉴스 프레임은 독자나 시청자의 메시지 해석의 틀과 상호작용하며, 독자나 시청자의 메시지 해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해석에 이용된 생각

의 요소들이 곧 개인의 의견을 형성하는데 기초자료가 된다는 것이다.

뉴스 프레임에 대한 기존 연구를 효과 측면에서 한정시킨다 하더라도, 각 연구가 사용하는 뉴스 프레임의 개념은 조금씩 다르며, 제시된 효과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실험연구를 통한 뉴스 프레임 효과연구의 경우, 수용자의 반응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는데, 뉴스 프레임의 효과를 직접적,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프레임의 유형을 설정하여 그것의 일반적인 효과와 작용과정을 살펴본다. 따라서 내용분석이나 여론조사를 이용한 연구에서와는 달리 뉴스 프레임을 비교적 단순하게 정의한다. 뉴스 프레임 효과에 대한 실험연구는 주로 수용자의 해석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이들이 특정 이슈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인지는 수용자가 이슈를 어떻게 규정하고 해석하느냐에 좌우된다고 본다. 수용자의 해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며, 이에 따라 뉴스 프레임의 효과는 흔히 수용자 해석의 변화, 혹은 문제규정의 변화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나은경, 1998). 해석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그것이 수용자의 태도나 실제 행위와 연결되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슈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 역시 뉴스 프레임의 효과로 연구되고 있다.

결국, 뉴스의 프레임 기능과 그 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뉴스 프레임이 개인의 메시지 해석에 미치는 영향이 집합적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겠으며, 이렇게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의견 형성 및 의견 변화의 집합이 여론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프레임 관련 연구를 검토해보면, 영상 텍스트를 구성하여 수용자들의 인지 및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연구는 미미한 형편이다. 인쇄 매체의 메시지를 이용한 프레임 연구는 연구절차가 단순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TV와 같은 영상 메시지에 비해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적 사고를 촉진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쇄 매체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충분한 자극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영상 메시지를 이용하여, 프레임에 대한 수용자 반응을 조사하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지식 및 기억 체계와

상호작용 하면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본다. 수용자는 주어진 뉴스 프레임 내에서 드러난 정보의 습득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 추론 가능한 정보의 함축적 의미와의 관련 속에서 미디어의 텍스트를 해석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3) 북한 관련 뉴스의 보도태도 변화

남북한은 1945년 이후, 분단체제 속에서 상호 극단적인 이념대립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남북한 전체 국민들의 의식과 표현 행위를 구속함으로써 남북이 이질화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남북한은 부분적인 의사 소통의 단절이 초래될 정도로 이질화가 상당히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통일 이전의 동서독 상황과 비교될 수 없는 한국적 특수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제까지 북한에서는 방송이 체제 유지를 위한 선전·선동 매체로 완전한 역할을 해왔고, 남한 역시 국가의 하부구조로서 북한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방송은 남북한의 대립구도를 재생산하며 남북한 국민들에게 서로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반통일 지향적 역할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이창현, 1989).

남한 사회의 언론은 북한 및 통일 관련 보도에서 다양한 정치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아왔다. 1948년 남한 정부 수립 이후 최근에 이르기까지, 남한 사회는 반공적이며, 독재적 성향을 지닌 정권들에 의해 지배되어 왔으며, 이념적 성향 역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유지되어 왔다. 역대 정권들은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정책을 통하여 보수적,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확정지었고, 그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서 언론을 통제하고자 하였다.²⁾ 통제된 언론은 객관성이 담보된 감시견으로서의 소임보다는 정책

2) 지배적 이데올로기로서의 반공 이데올로기는 지난 30여년간 통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던 권위주의적, 보수적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여전히 한국 사회

홍보와 반복 성향의 여론 형성에 노력해 왔다.

이렇듯, 근래까지 남한의 언론은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함에도,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끌려 그 역할이 축소, 왜곡된 측면이 있다. 특히 수용자 효과 측면에서, 여러 보도 대상들 가운데 북한 및 통일 관련 보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통제된 언론이 제공하는 정보를 수용자가 아무런 여과 없이 수용해 왔으며 또한, 언론이 잠재적으로 지니고 있을 북한·통일 관련 인식이 투영된 뉴스 보도 내용과 해설을 통하여 북한을 이해하고, 통일 문제에 대한 개인의 이미지와 생각이 만들어져 왔던 것이다.

그러나, 1998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남북한간 ‘햇볕 정책’ 및 ‘6.15 남북정상회담’ 등의 획기적인 사안이 실천되었고, 따라서 남한의 북한 관련 뉴스 프레임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특히, 텔레비전이 규정하는 현실이 어느 미디어보다 수용자의 사고와 가치형성에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과거 냉전적이며 적대적인 특성을 지향하던 북한 관련 TV 뉴스의 프레임이, 우호적이고 통일 지향적인 프레임으로 변화하고 있음은 미디어 영향력에 비추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창윤(2000)의 연구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이 실질적으로 방송사의 북한 관련 보도에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였으며,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의 부정적 논조의 보도 태도에서 중립적, 혹은 긍정적 보도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한다. 북한 관련 보도에서 나타난 논조의 변화는 방송사들이 뉴스 아이템을 선정하는 선택과정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뉴스 아이템의 주제 선정 자체가 변화된 것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지속적인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하였고, 북한에 대해 ‘햇볕론’을 내세워, 과거 남북간 대결정책을 지양하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교류를 추진해나가고 있다. 또한 6.15 남북정상회담을 이끌어냄으로써, 한층 유화적 국면을 조성해나가고 있기도 하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은

를 특징짓는 대표적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반공주의에서 통일과 평화 지향적인 공존의 논리, 둘째, 냉전 패러다임에서 탈냉전 패러다임으로의 변화, 셋째, 이분법적 메카시즘에서 이념 스펙트럼의 확장과 개방 등이 그것이다(주창윤, 2000).

이처럼 역대 정권의 대북한 정책과 차별성을 보이는 현 정권에서 뉴스 보도 태도 역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즉, 금강산 관광, 남북정상회담,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철도복원 사업 공동참여 등의 관련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의 유화적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 하였다. 이는 언론의 대북한 보도 논조를 급격하게 바꾸어 놓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뉴스의 양적 증가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부정적인 보도의 점진적 감소와 중립적 보도의 현격한 증가, 또한 과거와 비교할 때 기사 주제의 상대적 다양화로 특징지을 수 있겠다. 변화의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표 1> 김대중 정권 집권 전후의 언론변화

김대중 집권 전	김대중 집권 후
보수, 반공/레드 콤플렉스	통일/평화지향적 공존의 논리
냉전 패러다임	탈냉전 패러다임
이분법적 메카시즘	이념 스펙트럼의 확장과 개방

출처: 『남북교류시대 북한보도. 남북한 언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한국언론연구원, 1998,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이 표와 같이, 김대중 정권이후 언론은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 보도 및 논조를 지켜왔다. 특히, 방송은 과거의 냉전적 보도태도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과거에 비해 감정적 보도태도를 자제하는 진일보한 자세를 보였다.

이창현(1999)에 의하면,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7년과 1998년 사이 KBS 9시 뉴스와 SBS 8시 뉴스에 나타난 북한 관련 뉴스의 경우, 부정적이

고, 열등한 이미지 등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그는 동일한 연구에서 방송사의 북한 관련 뉴스에서 나타난 북한사회의 이미지 요인에 대해서, 보도 내용상, 북한의 '적대적' 이미지 요인과 '열등적' 이미지 요인이 김대중 정부 집권 전, 후로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여기서 말하는 '적대적' 이미지 요인이란, 불합리, 이질적, 비우호, 강경의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며, '열등적' 이미지 요인에는, 가난, 비인간의 이미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첫째, 북한 관련 뉴스에 나타난 '적대적' 이미지 요인의 경우, KBS와 SBS 모든 방송사에서 김대중 정부 집권 이후, 감소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같은 연구가 정권 변화에 따른 특정 시점간에 뉴스 가치와 보도태도의 변화를 살펴본 것이라고 한다면, 뉴스 프레임 측면에서의 변화를 낳을 수 있다. 보도 논조 및 내용상의 긍정적 혹은 부정적 변화는 뉴스 프레임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북한 관련 뉴스의 프레임이 크게 적대적 뉴스 프레임에서 우호적 뉴스 프레임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해 볼 수 있겠다.

<표 2> 북한 관련 뉴스의 특징적 프레임

적대적 뉴스 프레임	우호적 뉴스 프레임
전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이질감, 적대감, 불확실성 등을 유발하거나 의심, 비난, 경고, 비관, 우려 등을 표명하는 경우	전반적으로 북한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동질감, 긍정적 감정 등을 유발하거나 지지, 낙관, 옹호 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경우

<표 2>와 같이 북한에 대하여 보도의 주제와 논조가 부정적, 적대적인 내용이 추가 된 특징적 뉴스 프레임을 적대적 뉴스 프레임이라 할 수 있으며, 반면 동일 사안에 대하여 보다 중립적이고 긍정적 내용이 추가 된 특징적 뉴스 프레임을 우호적 뉴스 프레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뉴스 아이템과 프레임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수용자의 북한 및 통일에 대한 인식

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영향력이 존재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킬 것인가?

4) 연구문제 및 가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문제들을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의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의 북한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연구문제 2>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의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의 통일 이후 사회적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연구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검증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1] 북한 관련 뉴스의 프레임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집단과 우호적·적대적 뉴스 프레임에 노출된 실험집단간에는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2] 북한 관련 뉴스의 프레임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집단과 우호적·적대적 뉴스 프레임에 노출된 실험집단간에는 북한의 사회·문화적 이미지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1-3] 북한 관련 뉴스의 프레임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집단과 우호적·적대적 뉴스 프레임에 노출된 실험집단간에는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 2-1] 북한 관련 뉴스의 프레임에 노출되지 않은 통제집단과 우호적·적대적 뉴스 프레임에 노출된 실험집단간에는 남북한 통일 이후 사회에 대한 인식에 차이를 보일 것이다.

3. 연구방법

1) 실험설계 및 절차

본 연구는 뉴스 프레임의 효과 측면에서 수용자에게 작용하는 방식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기 상이한 뉴스 프레임의 영상물을 피험자들에게 보여준 후, 그 반응의 차이를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채택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 프레임은 북한 및 통일관련 내용으로써 각기 상반된 가치를 강조한 ‘우호적 뉴스프레임’과 ‘적대적 뉴스 프레임’을 설정하였으며, 피험자들의 반응은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설문지를 통하여 얻어냈다. 각 뉴스 프레임의 특성에 따라 3개 집단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2개 집단은 각각 실험 처치물로 작성된 다른 영상 뉴스를 보고 난 후, 처치물을 본 느낌을 설문지를 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나머지 1개 집단은 통제집단으로 실험 처치물을 보지 않고 바로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즉, 대상 실험 집단은 ‘우호적 뉴스 프레임’ 시청 1개 집단(집단 A), ‘적대적 뉴스 프레임’ 시청 1개 집단(집단 B)과 통제집단으로서 1개 집단(집단 C) 등이다.

<표 3> 실험 설계에 따른 모형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		실험처치내용	종속 변인
실험 집단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집단 A)	우호적 뉴스 노출	1. 북한의 이미지 △ 정치적 이미지 △ 사회·문화적 이미지 2. 북한사람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3. 통일 이후에 대한 인식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집단 B)	적대적 뉴스 노출	
통제집단(집단 C)		뉴스에 노출 안됨	

본 실험에 앞서, 실험 설계와 실험에 사용될 영상물, 설문지 작성이 제대

로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학원생 8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조사 전 예상한 바와 같이, 뉴스 프레임에 따른 이슈 인식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면담을 실시한 결과, 뉴스 프레임의 설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이 실험처치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별도의 조사항목을 통해 조사하였다.

본 실험은 2002년 5월 21일과 5월 24일 서울 시내 대학교의 교양강의시간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교양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수강 학생들의 전공 특성이 실험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각 집단별로, 뉴스 프레임에 따라 달리 작성된 뉴스 아이템을 보여 준 후, 각각 70부씩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집단별로 실험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유의하였다. 뉴스 영상물을 보는 시간을 포함하여 실험에 걸린 시간은 각각 30분 정도였다. 최종적으로 수거된 설문지는 적대적 뉴스 프레임 62부, 우호적 뉴스 프레임 63부, 통제집단 65부로 총 190부였으며, 이를 최종적으로 가설 검증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2) 실험 처치물

실험 처치물은 카인즈(Kinds) 뉴스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색한 후 구성하였는데, 기간은 첫째, 김영삼 정부 집권기인, 1997년 7월부터 1997년 12월까지 6개월을, 둘째, 김대중 정부 집권기인 2000년 5월부터 2000년 10월까지 6개월로 나누어 실시하였다.³⁾ 뉴스 내용은 한국방송공사(KBS)의 9시 뉴스에서 방영된 전체 내용 중 '북한' 및 '남북' '통일'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여 나타난 기사 중 각 프레임 별로 20개씩의 아이템을 선정하고, 연구자가 대별될 수 있는 프레임에 적합한 아이템을 각각 10개씩을 대학원생

3) 시기를 이와 같이 나눈 것은 Kinds 검색을 통해서 뉴스 아이템을 찾았으나, KBS의 경우 1999년 이전에서 검색이 되지 않아 부득이하게 그 시기가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김영삼 정권기의 뉴스 아이템은 기존에 수집되어 있던 자료를 사용하였다.

을 대상으로 한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처치물로써 뉴스 아이템은 앞의 이론적 논의에서 언급한 프레임의 성격에 부합하는 뉴스아이템을 선정하였다. 즉, 우호적 뉴스 아이템을 살펴보면 평양의 시민표정, 추석 쇄기와 같이 북한의 전통적인 측면 및 과학기술 등의 북한의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측면을 강조된 반면, 적대적 뉴스 아이템의 경우 북한의 식량난 등 어려운 사회적 상황과 폐쇄적인 사회 분위기의 부정적, 폐쇄적인 측면이 강조되었다. 각 프레임에 따라 선정된 구체적 뉴스 아이템은 다음과 같다.

<표 4> 실험 메시지로 선정된 뉴스 아이템

	뉴스 아이템	
	방영일시	뉴스 내용
적대적 뉴스 아이템	1997.07.17	<구호식량 수출의혹> : 구호 식량 일본에 수출
	1997.07.25	<태러무기 본격수색> : 황장엽 망명에 따른 태러 위협
	1997.07.30	<절망의 복녘> : 식량난으로 인한 어려움
	1997.10.18	<이상한 사회> : 경직된 북한 사회
	1997.11.06	<18명 공개처형> : 식량난으로 인한 어려움과 희생양
	1997.12.07	<마취없는 수술 '충격'> : 북한의 의료체계 붕괴
우호적 뉴스 아이템	2000.5.20	<수도 55년, 지금 평양은> : 평양 시내 전경과 시민들 표정
	2000.6.06	<컴퓨터 열기> : 북한에서의 컴퓨터와 외국어 열기
	2000.6.14	<북한의 컴퓨터 센터> : 세계적 수준의 소프트웨어 기술
	2000.7.25	<북, 스포츠 드라마 붐> : 재미있고 파격적인 소재
	2000.9.10	<북한의 추석 쇄기> : 남한과 같은 북한의 추석 쇄기
	2000.10.01	<북한, 지금은...> : 백두, 한라 교차 관광단 맞이 표정

3) 실험처치집단의 특성

본 연구를 위해서 125명의 대학생 실험집단에게 뉴스를 보도록 하는 실험처치를 한 후(우호적 뉴스처치: 63명, 적대적 뉴스처치: 62명), 북한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65명의 통제집단에게는 뉴스처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인식을 묻는 설문조사만을 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북한인식의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해서 χ^2 검증을 해본 결과, 모든 변인사이에 χ^2 의 검증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사회인구학적 측면과 북한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실험 및 통제집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비교

구분		각 집단별 빈도			전체 비율 (%)	χ^2 통계량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우호적	적대적			
성 별 (N=190)	남자	36	33	32	101(53%)	$\chi^2=0.8$ p=0.66
	여자	27	29	33	89(47%)	
	합계	63	62	65	190(100%)	
학년별 (N=190)	1학년	22	21	25	68(36%)	$\chi^2=5.8$ p=0.44
	2학년	20	18	13	51(27%)	
	3학년	8	14	17	39(20%)	
	4학년	13	9	10	32(17%)	
	합계	63	62	65	190(100%)	
연령별 (N=190)	19세 - 21세	35	37	34	106(56%)	$\chi^2=4.8$ p=0.56
	21세 - 23세	12	8	15	35(18%)	
	23세 - 25세	5	10	7	22(12%)	
	25세 이상	11	7	9	27(14%)	
	합계	63	62	65	190(100%)	
전공별 (N=190)	인문계	41	39	33	113(60%)	$\chi^2=3.9$ p=0.41
	자연계	18	18	23	59(31%)	
	예·체능계	4	5	9	18(9%)	
	합계	63	62	65	190(100%)	
이념적 성향 (N=190)	진보층	6	4	9	19(10%)	$\chi^2=12.5$ p=0.12
	온건 진보층	20	25	31	76(40%)	
	중도층	20	18	15	53(28%)	
	온건 보수층	17	14	7	38(20%)	
	보수층		1	3	4(2%)	
합계	63	62	65	190(100%)		
김대중 정부의 통일정책 에 대한 인식 (N=190)	전적으로 찬성	2	2	5	9(5%)	$\chi^2=12.9$ p=0.11
	어느 정도 찬성	28	25	39	92(48%)	
	보통이다	21	19	17	57(30%)	
	어느 정도 반대	11	15	4	30(16%)	
	전적으로 반대	1	1		2(1%)	
	합계	63	62	65	190(100%)	

4) 실험 처치물에 대한 평가

북한 관련 뉴스가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험에 사용된 뉴스 영상물을 시청한 두 집단(우호적, 적대적 뉴스 프레임)과 시청하지 않은 통제집단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봄으로써,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또한, 실험 처치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각 집단의 평균값을 비교해 본 결과 그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는 실험 처치물에 대한 평가가 당초에 추정했던 바와 같이 우호적, 적대적인 차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표 6> 실험처치에 대한 평가(평균값)

구분	문항(N=190)	우호적 뉴스 노출 집단	적대적 뉴스 노출 집단	통제집단	합계	유의확률
긍정적 요소	우호적 묘사	3.68	2.05	3.09	2.95	0.000
	통일 지향적 묘사	3.37	2.24	3.03	2.88	0.000
	동질적 묘사	3.19	2.37	2.83	2.80	0.000
	선진적 묘사	2.73	1.94	1.80	2.15	0.000
부정적 요소	부정적 묘사	1.84	3.95	3.05	2.94	0.000
	자극적 묘사	2.24	3.89	3.18	3.10	0.000
	열등한 묘사	2.46	3.82	3.55	3.28	0.000
	편파적 묘사	2.70	3.08	3.08	2.95	0.002

5) 종속변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은 크게 북한의 이미지, 북한사람들과의 거리감, 통일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누어진다. 북한의 이미지는 정치적 이미지와 사회·문화적 이미지로 나누었고, 정치적 이미지는 8개의 측정척도를 갖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이미지는 10개의 측정척도를 갖고 있다.

첫째,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측정척도를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 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바르레트(Bartlett)

의 구형 검정치가 379.2이고 유의확률 값이 0.0이었다. 추출된 성분은 총 3가지로, 1성분은 독재·권위·확일 등의 요소로 구성된 부정적 정치 이미지 1 요인, 2성분은 융통성 없음·불안 등의 부정적 정치 이미지 2 요인, 3성분은 자주·일관·정통성 등의 긍정적 정치 이미지 1 요인이다. 둘째, 북한의 사회·문화적 이미지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설문 문항에 대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바트레트의 구형 검정치는 460.6이며, 유의확률 값은 0.0이었다. 추출된 성분은 3가지로, 1성분은 순박·전통·부지런·진솔 등의 요소로 구성된 긍정적 사회, 문화 이미지 1 요인으로 정의했으며, 2성분은 불쌍·가난·유치·잔인 등의 요소로 부정적 사회, 문화 이미지 1 요인, 3성분은 호전·독립 등이며 부정적 사회, 문화 이미지 2 요인이다.

셋째,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측정은 김혜숙의 보가더스 척도(Bogardus' Scale)을 원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험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7개의 척도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측정 항목의 값을 합산한 평균값의 차이는 각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살펴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며, 그 값이 높을수록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 이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일인식과 관련된 측정척도는 8개로 바트레트 구형 검정치는 379.2, 유의확률 값은 0.0이었다. 이들을 요인 분석한 결과, 추출된 성분은 세 가지였다. 1성분은 경제적 낙후·이질감 심화·모두 불행 등의 요소로 구성된 부정적 통일관 1 요인이며, 2성분은 자주성·위상 강화·전통 양식 확대 등의 긍정적 통일관 1 요인, 3성분은 빈부격차 심화·사회, 문화적 혼돈 등의 부정적 통일관 2 요인이다. 요인 분석 결과 각 구성 개념에 따라 나타난 성분과 각 성분에 해당하는 항목들의 회전된 행렬값은 베리맥스 회전을 실시하여 나타난 값으로, 각 성분에서 그 행렬값이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여 그 값이 0.5 이상이 되는 항목들만을 추출하였다. 또한 추출된 항목들의 유의확률 역시 0.00으로 나타나 각 항목들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 7, 8, 9>에 제시하였다.

<표 7> 북한의 이미지의 요인 분석 결과

구성 개념	성분	요인 분석 후 추출된 가설 측정 항목	회전된 성분 행렬 값	구형 검정치/ 유의확률
정치적 이미지	부정적 정치이미지 1 요인	권위적이다	0.633	379.2 /0.000
		확일적이다	0.594	
		독재적이다	0.549	
	부정적 정치이미지 2 요인	용통성이 없다	0.545	
		불안하다	0.535	
	긍정적 정치이미지 1 요인	자주적이다	0.726	
		일관성이 있다	0.719	
정통성이 있다		0.555		
사회·문화 적 이미지	긍정적 사회,문화이미지 1 요인	순박하다	0.718	460.6 /0.000
		전통적이다	0.685	
		진솔하다	0.669	
		부지런하다	0.619	
	부정적 사회,문화이미지 1요인	불쌍하다	0.787	
		가난하다	0.722	
		유치하다	0.546	
		잔인하다	0.522	
	부정적 사회, 문화이미지2 요인	호전적이다	0.830	
독립적이다		0.667		

<표 8> 사회적 거리감 측정 문항과 각 집단의 평균값

문항	측정 문항	각 집단의 평균값			전체 평균
		우호적	적대적	통제집단	
1	북한 사람과 결혼 할 수 있다.	2.89	2.60	3.06	2.85
2	북한 사람을 연인으로도 환영하겠다.	3.00	2.73	3.26	3.00
3	북한 사람을 내가 속한 친목모임에 같은 회원으로 받아들여겠다.	3.75	3.56	3.85	3.72
4	북한 사람을 같은 직장의 동료로 삼겠다.	3.81	3.69	3.95	3.82
5	북한 사람을 기회가 닿으면 친구로 삼겠다.	3.97	3.81	4.14	3.97
6	북한 사람과 악수 정도는 하겠다.	4.35	4.23	4.60	4.39
7	북한 사람이 옆집에 와서 살면 인사 정도 하겠다.	4.35	4.19	4.55	4.37
합 계		26.11	24.81	27.42	26.13

<표 9> 통일 이후 인식의 요인 분석 결과

성분	요인 분석 후 추출된 가설 측정 항목	회전된 성분 행렬값	구형 검정치/ 유의확률
부정적 통일관 1 요인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낙후될 것이다	0.692	282.8 /000
	남북한 주민들간에 이질감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0.669	
	남과 북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0.516	
긍정적 통일관 1 요인	민족의 자주성이 강화될 것이다	0.754	
	남과 북은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다	0.604	
	전통적 민속양식이 더욱 확대될 것이다	0.516	
부정적 통일관 2 요인	남과 북은 현재보다 빈부격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다	0.767	
	남과 북은 지금보다 더욱 사회·문화적으로 혼돈에 빠질 것이다	0.562	

4. 연구 결과

1) <연구문제 1>의 결과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의 프레임이 북한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연구문제 1>의 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 1-1]과 [가설 1-2]는 채택 및 부분 채택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설 1-1]에서 밝힌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 분석을 통해 제시된 세 가지 성분을 기초로 각 집단별 분산 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뉴스 실험 처치를 하지 않았던 통제 집단과 실험 처치가 되었던 두 집단 간에는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부정적 정치 이미지에서는, 통제집단의 평균값이 12.09(1요인), 7.28(2요인)인 것에 비하여, 우호적 뉴스 프레임 처치 집단의 평균값

이 각각 11.81(1요인)과 7.48(2요인)으로, 적대적 뉴스 프레이밍 처치 집단의 평균값은 12.82(1요인)와 8.02(2요인)로 나타난 것은 각각 이미지 구성 성분들에서 각 실험 집단의 평균값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부정적 정치 이미지의 제2요인은 우호적인 뉴스 프레이밍의 처치 후에도 통제집단의 평균값보다 오히려 부정적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것은 우호적인 프레이밍의 뉴스에 노출된 후에도 부정적 이미지 제2 요인(유통성 없다, 불안하다)은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긍정적 정치 이미지 요인에서는 통제집단의 평균값이 8.85인 것에 비하여,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평균값이 9.11이며,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의 평균값은 7.74로 실험 집단의 평균값이 통제집단에 비해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등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이 뉴스 처치에 따라 긍정적·부정적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서, 부정적 뉴스 아이템을 시청한 실험 집단은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높아진 반면, 우호적 뉴스 아이템을 시청한 실험 집단의 경우에, 긍정적 이미지가 높아지기는 하나, 부정적 정치이미지 2요인의 경우는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가설 1-1]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설 1-2]에서 제시한 북한의 사회·문화적 이미지에 대한 뉴스 프레이밍의 영향력 검증 결과, 뉴스 실험 처치 집단과 비 처치 집단인 통제집단을 비교했을 때, 세 가지 성분에 따라 부분적으로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긍정적 사회·문화 이미지 1 요인에서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인식이 북한의 사회·문화적 이미지에 대하여 그 평균값이 13.30으로 통제 집단의 평균값 12.32에 비하여 긍정적으로 변화한 반면,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의 인식은 평균값이 10.84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 사실에 기초해서 뉴스 프레이밍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사회, 문화 이미지 1 요인으로 정의된 제 2성분에서 두 실험 집단 평균값 즉,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평균값 13.52와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의 평균값 15.94가 통제집단의 평균값 13.32 보다 높아진 결과는 예상과 빗나간 결과라고 할수 있다.

이것은 북한에 대한 정치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일반 대학생 응답자들이 우호적인 뉴스 처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 긍정적인 인식이 계발되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인식이 계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부정적 사회, 문화 이미지 2 요인의 경우, 세 집단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가설 1-2]는 3개의 요인중 부정적 사회·문화이미지 요인의 경우를 제외한 2개의 요인은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설정된 [가설 1-3]은 검증 결과 채택되었다. 분산 분석 결과 두 실험 집단의 평균값은 일정한 변화가 나타났으나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경우, 그 평균값이 26.11로 통제집단의 평균값 27.42와 비교하여 오히려 약간 낮아졌으며,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은 24.81로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낮아졌다. 이러한 사실은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 및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 모두 뉴스 처치를 하지 않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이 확대된 것으로 결국, 뉴스 처치에 따라 피험자들

<표 10> <연구문제 1>의 분석 결과

종속변인	측정 요인	실험집단 평균		통제집단 평균 (N=65)	F값 /유의 확률
		우호적 (N=63)	적대적 (N=62)		
북한의 정치 이미지	부정적 정치 이미지 1 요인	11.81	12.82	12.09	5.52/0.00
	부정적 정치 이미지 2 요인	7.48	8.02	7.28	5.13/0.00
	긍정적 정치 이미지 1 요인	9.11	7.74	8.85	5.99/0.00
북한의 사회·문화 이미지	긍정적 사회·문화 이미지 1 요인	13.30	10.84	12.32	16.41/0.00
	부정적 사회·문화 이미지 1 요인	13.52	15.94	13.32	22.10/0.00
	부정적 사회·문화 이미지 2 요인	6.25	5.66	6.25	2.56/0.8
거리감	사회적 거리감	26.11	24.81	27.42	6.19/0.002

의 인식의 변화가 유발되었으나, 우호적 뉴스를 시청한 집단 역시 부정적 인식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는 <표 10>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연구문제 2>의 결과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의 프레임이 통일에 대한 인식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제시된 <연구문제 2>의 답을 얻기 위해 만들어진 [가설 2-1]은 검증 결과 채택되었다. 요인 분석을 통해 제시된 세 가지 성분을 기초로 평균값을 비교해본 결과, 부정적 통일인식 1 요인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8.40으로,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은 8.95로 나타나 두 실험 집단 모두가 통제집단의 평균값인 7.72에 비하여 그 값이 올라간 것은 피험자들의 관련 사항 인식을 부정적으로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 역시 뉴스를 보고 난 이후에도 통일 이후 사회적 상황을 경제적으로 낙후하며, 남북한간 이질감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부정적 통일인식 2 요인에서는 통제집단의 평균값이 7.18인데 비하여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은 5.46으로,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은 7.66으로 나타나 각각 실험 처치된 뉴스에 의하여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긍정적 통일인식 1 요인에서는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평균값이 11.49로,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은 9.69로 나타나 통제집단의 값인 11.29와 차이

<표 11> <연구문제 2>의 분석 결과

종속변인	측정 요인	실험집단 평균		통제집단 평균 (N=65)	F /유의확률
		우호적 (N=63)	적대적 (N=62)		
통일 이후에 대한 인식	부정적 통일인식 1 요인	8.40	8.95	7.72	6.0/0.00
	부정적 통일인식 2 요인	5.46	7.66	7.18	45.3/0.00
	긍정적 통일인식 1 요인	11.49	9.69	11.29	19.3/0.00

를 보였는데, 이는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경우 통제집단에 비하여 보다 긍정적으로, 적대적 뉴스 처치 집단은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한 결과이다. 따라서 [가설 2-1]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적으로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르지 않지만, 우호적 뉴스를 시청한 집단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강화되었다는 것은 아주 시사하는바가 크다. 이것이 실험처치상의 오류인지, 아니면 북한뉴스 아이템의 경우, 우호적으로 분류된 것일지라도 남한 대학생 수용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키는 요소가 담겨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증해야할 것이다. 이상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들의 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북한의 정치적 이미지와 사회·문화적 이미지, 북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통일 이후에 사회적 상황인식에 대하여 뉴스 처치 이후 두 실험 집단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인식의 변화가 부분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앞의 이론적 논의들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TV 뉴스를 시청하는 수용자에 대한 뉴스 프레임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북한 관련 뉴스 프레임의 특성에 따라 수용자의 북한 및 통일 인식에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경우, 그 효과가 북한의 정치이미지, 사회·문화이미지, 사회적 거리감, 그리고 통일인식 등에서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통제집단보다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추론이 가능하다. 즉, 뉴스 내용에 담겨있는 북한 사회의 이질감 및 경제적 낙후성 때문에 우호적 뉴스 처치 집단의 피험자들도 이질감을 느꼈고,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이상의 이론적 함의 외에도 현실적인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및 통일 관련 사항이라는 특정 이슈에 대하여 TV 뉴스의 프레임에 따라 수용자 인식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함으로써 이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나라 TV 뉴스의 올바른 보도 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다. 연구 결과를 통해, 각각 특징에 따라 대별된 뉴스 프레임을 접한 피험자들의 인식이 미디어 프레임과 같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이 검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정권의 대북 정책과 맞물려 있는 기존 뉴스 보도 관행의 변화가 시청자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지지해준다. 그리고 제작과정에 있어서 북한 및 통일관련 뉴스 중에서 우호적인 뉴스를 선정하여 보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남한수용자들의 인식의 변화는 부정적인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실증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던 북한 관련 뉴스의 프레임이 수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실험 연구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앞으로 전개될 관련 연구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제한점이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실험 처치물이 지닌 제한점이다. 피험자들이 이미 시청 하였던 이미 방송된 뉴스 아이템을 실험 처치물로 썼다는 점이 그것인데, 이것은 기존방송뉴스의 시청여부에 따라서 프레임 효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존의 시청 경험과 가치체계가 존재한다고 해서 프레임 효과가 반드시 줄어든다고는 볼 수 없다. 뉴스 프레임 효과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순수한 뉴스 학습 효과와는 차이가 있는 것이며, 뉴스 프레임 연구에서의 관심은 특정 뉴스 프레임이 특정한 인지 요소를 활성화시키고 나아가 특정 태도로 이끈다는 점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이 연구는 실험연구이며, 뉴스 내용물을 우호적/적대적 강조의 차원으로 구분하였지만, 현실에서 메시지가 이렇듯 구분되지는 않는 것이고, 또

한 미디어의 영향력 검증에 일회성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일회성 실험 연구를 보완할 만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실험대상자들의 한계점을 들 수 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연구는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특히, 전체 표본 중 많은 수를 차지하는 대학생 1, 2학년들은 북한 및 통일과 관련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 향후, 피험자들을 보다 폭넓은 대상에서 표집 한다면 이러한 일반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명구 (1994). 『한국 저널리즘 이론』. 서울: 나남.
- 나은경 (1998). 『뉴스 프레이밍 방식의 차이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태도 및 대응 방식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석사학위 논문.
- 박선희 (2001). 언론개혁에 관한 인터넷 뉴스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 15-2호, 81~119.
- 박용규 (1999). 한국언론의 북한보도 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언론재단, 한국국제정치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언론의 역할과 남북한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발표논문.
- 박정순 (1999). 객관보도의 경계와 지역감정 TV뉴스의 사례연구. 『광전 커뮤니케이션 학보』, 제1호, 120~155.
- 서미혜 (1998). 『선거 뉴스 프레임이 수용자의 정치적 냉소주의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 양승목 (1997). 언론과 여론: 구성주의적 접근. 『언론과 사회』, 17호, 6~40.
- 유재천 (1991). 한국언론의 시대적 고찰. 한국언론연구원 편, 『한국언론의 현주소』.
- 윤영철 (2000). 권력이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 신문과 정당의 병행관계

- 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7호, 48~81.
- 윤영철 (2001). 『한국민주주의와 언론』, 서울 : 유민문화재단.
- 이건혁 (2001). 『미디어 프레이밍이 수용자의 정치불신, 정치 효능성 및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언론정보학과 박사학위 논문
- 이우승 (2000). 『남북 정상회담 뉴스보도 분석: KBS를 중심으로』. (현안연구 00-08). 한국방송진흥원.
- 이중은 (1999). 『장애인 문제에 관한 미디어 프레이밍 감정이입, 편견의 감소 및 문제해결 동기화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준용 (1997). 언론의 톨 짓기 기능과 여론의 변화. 『언론과 사회』, 17호, 100~135.
- 이준용 (2000). 프레이밍, 해석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효과. 『언론과 사회』, 29호, 85~152.
- 이준용 (2000). 통일을 위한 방송의 역할 : 북한관련 정보추구와 통일에 대한 '해석적 프레이밍'이 통일정책에 대한 여론에 미치는 영향. 『방송연구』, 51호, 223~253.
- 이창현 (1989). 방송매체의 반공이데올로기. 『저널리즘』, 가을·겨울호, 62-86.
- 이창현 (1999). 북한관련 텔레비전 뉴스의 보도유형 분석: 보도태도와 뉴스 가치의 정향에 따른 분류체제(typology)의 적용.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발표 논문.
- 이효성 (1989). 『언론비판』. 서울: 이론과 실천.
- 주창운 (2000). 『북한 관련보도의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현안연구 00-01). 한국방송진흥원.
- 조광희 (2000).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과 언론의 의제설정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신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 조항제 (2001).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정부의 시장 주류 미디어의 관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16호, 168~204.
- 최용주 (1996). 정치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언론과 정치의 상호침투. 『언론과 사회』, 제11호, 6~33.
- 태정은 (1999). 『정권교체에 따른 북한관련 보도성향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 언론에 나타난 합의, 논쟁, 일탈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 논문.

한국언론연구원 (1995). 『전후 분단국가의 언론정책: 독일의 동방정책과 한국의 북방정책 비교연구』, (연구보고서 95-3).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한국언론연구원 (1998). 『남북교류시대 북한보도. 남북한 언론교류: 현황과 활성화 방안』.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Cook, T. E. (1998). *Governing with the news: The news media as a political institu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McQuail, D. (2002). *Mass communication theory*. 양승찬 · 강미은 · 도준호 공역, 『매스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나남.

Entman, R. M. (1993). Framing: Toward clarification of a fractured paradigm. *Journal of Communication*, 43, 51~58.

Gamson, W., & Modigliani, A. (1989). Media discourse and public opinion: A construction approach.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5 (3), 1~37.

Gans, H. L. (1979). *Deciding what's news: A study of CBS Evening News, NBC Nightly News, Newsweek and Time*. New York: Pantheon.

Gitlin, T. (1980). *The whole world is watching: Mass media in the making and unmaking of the New Left*.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Goffman, E. (1974). *Framing analysis*.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Hall, S. (1988). 문화 · 미디어 · 이데올로기. 이상희 (편역), 『커뮤니케이션과 이데올로기』. 서울: 한길사.

Iyenger. (1991). *Is anyone responsible? How television frames political issu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an, Z. & Kosicki, G. M. (1993). Framing analysis : An approach to news discourse. *Political Communication*, 10, 55~75.

Price, V., Tewksbury, D., & Powers, E. (1997). Switching trains of thought: The impact of news frame on readers' cognitive responses. *Communication Research*. 24(5), 481~506.

Scheufele, D. A. (1999). Framing as a theory of media effects. *Journal of Communication*, 49(4), 103~122.

- Shoemaker, P., & Reese, D. (1996). *Mediating the message: Theories of influences on mass media content*, (2nd ed). White Plains, New York: Longman.
- Snow, D. A. (1988). Ideology, frame resonance, and participation mobilization. *International Social Movement Research*, 1, 197~217.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of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Free Press.

(최초투고 2002. 9. 2, 최종논문 제출 2002. 10. 12)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ffects of Television News Frame

on the Audiences' Perception about North Korea

Seongjoon Kim

M. A.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Changhyun Lee

Professor

School of Communication, Kookmin University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South Korean policy towards the North which in turn changed the news frame of television broadcasters in South Korea. We did an empirical analysis of how this changed news frame influence the audiences'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Unification. An experimental design was carried out in order to test the response of the audiences to different news frame. The results show that the respondents' perception towards North Korea were changed when exposed to a specific type of new frame. This confirms the existing knowledge on how news frame influence the perception of TV viewers. This research can serve as background information when making decisions to how the South Korean news media should report North Korea and Unification related news stories.

Keywords: News frame, change in audience perception, media effects, North Korea